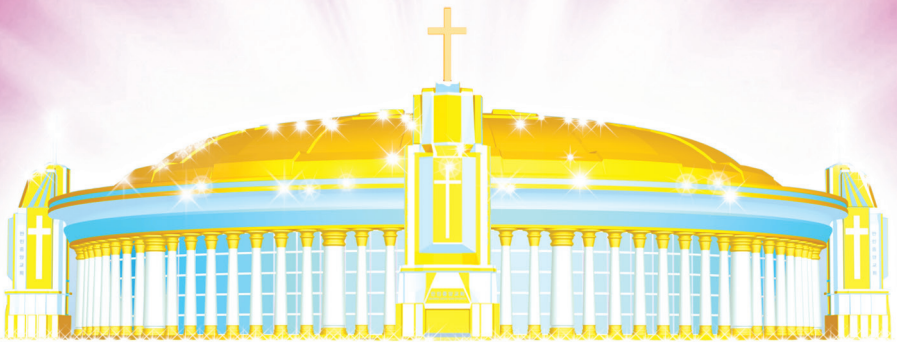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 재 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2년도 기도제목

- 1) 불가능이 없는 믿음 (마가복음 9:23)
- 2) 거룩한 자녀 (데살로니가전서 4:3, 디모데전서 4:5)
- 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마태복음 21:12~13)
- 4) 재창조의 권능 100% (에스겔 37:4~10)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이수진(당회장 직무대행)
(남) 안성현 조대희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식 장성식
정현진 이풍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노영진
(여) 이미경 최영자 이미영 이성숙

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

협동 목사/ 문신현 황금란

전 도 사/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황미선 조은영 강순길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최시은 김진주

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

기도원 교역자/ 김영식

지교회 교역자/ 문태규 정철수 이행업 박흥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제수 서진범 김창숙 박중대
황병덕 오환준 김혜경 차전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정오
김상휘

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영호, 김중훈

폴 무사파리 날완고(협력), 자코 네마 시카덴타(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쯔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정연, 온두라스 에스테인 할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송, 마크 바질레프

캐 나 다: 이성일

영 국: 제인 음플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비탈리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판: 조찬형, 성 수,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삼휘

몽 골: 발차릭 푸레브, 양호바야르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지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윌슨 존 길, 타리크 지야

중 동: 보나 시뚜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에스토니아: 그리고리 콜레스트

원로 장로/ 이정호

장 로/

반성건 이동림 최중태 이주월 추오동 이시헌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오세영 박영준 정안권 박노철 김왕기 박현재 박경춘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흥만 김규식 송왕근 김진홍 송석길 이강준 장영규 이익석
임영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효용 윤성식 김기호 박흥열 박영갑
김봉완 홍명일 김준호 이강복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태봉 채윤석
김석환 진교성 황병환 박성준 최병술 이덕행 최희승 허은범 정태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정성규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용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열 손영락 윤부열 박종웅
송영현 이성익 정영호 정용필

명예 장로/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중
최신일 한병용 나중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명옥 배철효 김영남 서상기 문경진 박진무

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재

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중웅
나 사 렛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흰 들 성가대: 서승현 낫시오케스트라: 김한구

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21장 1절	다 같 이
* 성시교독 37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204장	다 같 이
기 도	노영진 목사
성경봉독 로마서 8:12~16	사 회 자
찬 양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았네/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2)	당회장님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159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사 회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영상	당회장님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 임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임학영 목사

1부 예배

대표기도	이미경 목사
성경봉독	누가복음 13:31~33/ 사회자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설교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2부 부목사 취임 및 인사

3부 감사와 축하 (축가: 서승원 집사)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박광현 목사

대표기도	곽윤진 전도사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5:31/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일신우일신/ 이미영 목사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차전환 목사

대표기도	조대희 목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12:5~9/ 사회자
찬양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48)/ 당회장님

2-9회 5차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남 원장

기간/ 8월 22일(월) ~ 9월 11일(주일)

주제/ 변화와 생명, 성전이전

새벽 예배

※ 추후 공지 시까지 새벽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조수열 목사	황금란 목사
주일 저녁예배	장성식 목사	장정미 전도사
수요 예배	정현진 목사	차경숙 전도사
금요 철야예배	강승표 목사	정진영 목사

강단헌화
갤러리



제 목 :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1)

본 문 : 롬 8:12~16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범사에 형통하고 어떤 길이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 인도받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상황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길이 형통한 길일까?' 고민하게 되지요. 이럴 때마다 정확한 답을 얻는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한 대로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1.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교통한다는 말에는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받는다’, ‘관계를 맺는다’, ‘사귀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교통하는 것이 당연하듯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또한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물론 교통하는 방식에 따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로마서 8장 14~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면 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아버지를 만난 후에도 아버지와 교류가 전혀 없다면 그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옛 습관대로 범사에 자기 생각을 좇습니다. 여전히 자기 한계 안에서 살게 되지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해도 자기 노하우와 능력 안에서 하므로 그 이상의 큰 이윤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지요. 앞일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재앙을 만나거나 악한 사람

의 관계에 속아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설령 재앙이 온다고 해도 능히 피할 수 있고, 축복받는 길을 알아 그 길로만 갈 수 있지요. 일터뿐 아니라 가정도 항상 평안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는 더더구나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내는 열매와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는 열매는 하늘과 땅 차이이지요.

예를 들어 성도의 가정을 심방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그 가정에 합당한 말씀을 주관 받습니다. 주관 받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반면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에 맞춰 말씀을 생각해 냅니다. 가령 '이 집은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던 부부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기에 하나님과 교통하여 그 말씀을 주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관 받은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에 권세가 따릅니다. 영혼들에게 통회자복의 은혜가 임하고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심령이 변화되어 영혼이 잘되어 가면 축복도 임합니다. 이렇게 영으로 심방해야 맡은 양 떼가 튼튼해지고 맡은 교구나 선교회가 부흥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도 양 떼를 좋은 말로 위로하고 육으로 잘해 주어서 영혼을 갈무리하기도 합니다. 잠시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육으로 갈무리한 영혼들은 어떤 시험을 당하면 마치 비바람에 썩은 과일이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혹은 자신에게 잘해 주던 일꾼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신앙이 미지근해지지요. 이는 참믿음을 심어 주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육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아무 상급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특히 하나님 일을 하는 주의 종이나 일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2. 하나님과 교통해 인도받으면 범사에 형통

성경을 보아도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2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도록 몰려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무작정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쭙았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고 답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전쟁 경험이 있었지요. 더구나 이제는 군대 장관도 아니고 유다 한 지파의 머릿도 아닌, 온 이스라엘 족속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얼마든지 당당하게 전장으로 나가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지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었고, 그 결과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또다시 블레셋 군대가 같은 장소로 몰려왔습니다. 이전과 같은 장소이고, 싸워본 지 얼마 안 된 상대이니 그냥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뿔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뿔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고 세세하게 전술을 일러 주셨지요. 순종한 다윗은 이번에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투에서만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마다 험통한 길로 갈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설령 음침한 사마의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범사에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께 인도받으면 무슨 일이든지 행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책략가보다 지혜로우시고 이 세상 어떤 권세자보다 능력이 크시지요. 또한 섬세하시고 자상하십니다. 범사에 이런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 인도를 받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지, 주관은 어떻게 오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는 장면들이 나옴

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는 체험을 했지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는 직접 천사를 만나 천사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 밖에도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과 어떤 게 다를까요? 이런 음성들은 외부로부터 들려오지만, 성령의 음성은 각 사람의 마음 안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의 역사를 받으면서 하나님, 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귀에 대고 소곤소곤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혹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우 중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 등을 듣는 것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사람에게 때를 좇아 들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이라면 성령의 음성은 우리 마음 안에서 들려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말씀한 대로 성령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마음 안에 거하시므로 음성도 우리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떤 또렷한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렁차고 청아한 말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들을 수만 있다면 성령의 음성처럼 섬세하고 확실한 음성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가다가 순간적으로 그른 선택을 하면 정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전혀 엉뚱한 곳에 이르기도 합니다. 원래 가려던 곳을 다시 찾아가려면 시간과 수고가 더 들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길이 분명 맞는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아니고, 지난번에도 잘 되었으니 이렇게 하면 또 잘될 것 같은데 잘 안되기도 하지요.

반면에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범사에 형통하고 어떤 길이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 인도받아서 항상 평탄한 길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 : 욥기강해(21) - 욥의 무지②

본 문 : 욥기 9:19~26

오늘은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 정죄하는 등 거침없이 드러나는 욥의 악과 속마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오해하는 욥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욥 9:19)

욥이 볼 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 무서운 분이었기에 강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강한 힘을 마음대로 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삼 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함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강함이며, 부활의 강함입니다.

이처럼 무엇보다 강하고 위대한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류를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강함입니다. 이 사랑의 힘은 죄인을 회개케 하며,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며, 원수와도 화목하게 만들지요. 이처럼 강한 사랑의 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심판자로서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주권을 사용하여 예정 가운데 마음대로 처리해 버리는 무서운 심판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석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요 5:26~27).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생명 곧 진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과 친히 본이 되어 행하셨던 모든 행함이 심판의 기준이 되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천국으로,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2. 욥의 이중성의 마음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나…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욥 9:20~21)

여기서 정죄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패괴란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의 속마음은 여전히 스스로 의롭고 정직하며 순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 욥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정죄하며 자신의 패괴함을 증거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이지요. 이는 욥의 이중성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척,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절제하여 너그러운 체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없는 엉뚱한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런 척, 거룩한 척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이중적인 모습이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죄를 인정하거나 형식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요일 3:18).

욥은 스스로 순전하다고 결론지으면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전능자에 의해 삶이 엉망이 된 현실 앞에서는 자신을 천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나는 예전에는 부유했고 명예와 권세도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의 원인을 나의 실수와 부족함으로 돌리고 회개해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하지요.

비록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해도 그러한 생각 자체가 큰 오산이요 너무나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나 명예가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만일 사업이 망하여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면 도리어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과 천국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변명하거나 이중성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비추어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3. 공의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판단, 정죄하는 욥

“일이 다 일반이라…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홀연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욥 9:22~23)

욥은 예정 가운데 마음대로 해 버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살아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와 같이 순전하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도 이처럼 고통받게 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 간에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극렬한 폴

무불 같은 심판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순식간에 불에 살라지는 지푸라기같이 패망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에는 치료하는 여호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십니다(말 4:1~2).

또한 신명기 28장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모든 복이 임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일반적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는 악의 보응을 받게 하시고 순전한 자는 선을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전 12:14, 마 16:27).

그러나 욥은 공의가 없는 하나님이라 오해할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자의 고난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홀연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 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에게 갑자기 재앙이 임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은 자기가 악하면 다른 사람도 악하게 봅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니 상대방도 거짓말한다 생각하고, 자기가 간음하니 상대방도 그러려니 생각하지요. 상대는 진실을 말하는데도 “속마음은 안 그러겠지” 판단합니다.

사람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광대하시고 오묘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하여 비꼬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설하고 있습니다.

4. 자신의 속마음을 보지 못하는 욥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웠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욥 9:24)

하나님께서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욥이 시험이 오기 전에는 순전하고 정직한 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깊은 속마음에 있는 악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도 이 악을 알았으므로 송사를 했고 하나님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속마음이 드러나고, 결국 회개하여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직도 자신의 속마음을 보지 못하니, 자기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굽게 하는 재판관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단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시 9:8). 하지만 욥은 현재 연단이 자신의 깊은 악으로 인함임을 깨닫지 못하니 계속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악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거침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욥 자신도 몰랐던 악들이지요.

그러나 욥은 시험이 오기 전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실하게 번제를 드렸으며,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았고, 열심히 이웃을 돌아보는 등 반듯한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순전하다고 해 주셨던 것입니다. 굳이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악을 들춰내신 것이 아니라 욥의 그 당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욥 또한 자신이 잘했던 것만을 생각하니 자신의 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가므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길 것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욥 9:25~26)

체부란, 왕이나 고위 직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보발꾼이나 우편물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 바빠 움직이지요.

욥이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다” 말한 것은 그만큼 시간이 허무하게 지나고 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즉 자기가 정한 응답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테두리를 벗어났음을 의미하며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체념이 담긴 말입니다.

바다에 배가 지날 때는 물보라를 일으키지만, 일단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흔적조차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아무런 유익도, 열매도 없이 허무하게 지나가고 있음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공중을 날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쏙살같이 내려와 잡아챱니다. 이는 욥이 허무하게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동시에 너무나 갈급한 심정을 호소하는 말입니다. 고통이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갈급함의 표현이며, 허무하게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흐름이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친구들이 이러한 욥의 아픈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면 그의 심령에 맞춰 사랑으로 권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욥의 친구들과같이 차갑게 내리쬐는 것이 아니라, 아픈 그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진리의 잣대로 판단하며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픔을 공감해 주고 사랑으로 깨우쳐 줌으로 상대가 회개하고 돌아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도 조금의 오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큰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이런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므로 연단하십니다. 그 과정에 낙오되고 넘어지는 이들이 있다 해도 알곡,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과 불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

읽을 말씀 / 열왕기상 18:38~39

외울 말씀 / 열왕기상 18:39

참고 말씀 / 에스겔 36:37

교육 내용 /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엘리야의 순종과 믿음의 행함을 본받게 한다.

이스라엘 역사상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시돈 왕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했는데, 그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으니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 것은 시간문제였지요. 아합은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게 만들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한 시대에 맞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며,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1.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엘리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기 전에는 매우 유약한 성품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은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주장하거나 화평을 깨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한 시대의 큰 선지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유약한 성품이 영적으로 담대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시 아합왕은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왕에게 보내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에 엘리야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합왕에게 전합니다(왕상 17:1).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을 곳을 지정해 주십니다. 악한 아합왕이 가뭄의 저주를 선포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엘리야를 그릇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릇 시냇가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공짜 받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내려 주었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2.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

엘리야의 예언대로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쳤습니다. 아합왕은 가뭄의 원인이 우상숭배임을 깨달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 앞에 나아갑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하며 소리칩니다. 이에 엘리야는 두려움 없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좇았음이라” 하지요. 즉 3년 반의 가뭄은 왕과 백성의 우상숭배로 인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 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사백 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합니다. 엘리야는 이들과 대결할 때 살아 계신 하나님만이 불로 응답하실 것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고 외쳤지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한 송이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비, 바람, 폭풍을 일으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이 큰소리로 바알을 부르며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면서까지 응답해 달라고 외쳤지만, 오정이 지나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응답도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엘리야는 먼저 여호와와 그의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그런 다음 번제물 위에 많은 물을 붓게 하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년 반 동안 계속된 가뭄 중에 무엇보다 귀한 것은 물입니다. 그 물을 통 냇에 담아 세 번씩이나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고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불살랐을 때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바알은 한낱 생명 없는 우상에 불과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역력히 보여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와 하나님으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고 도랑의 물까지 다 훔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인정하였지요.

엘리야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큰비가 내리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행한 엘리야

불의 응답으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회개시킨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여 기손 시내에서 다 죽입니다(왕상 18:40).

그리고 아합왕에게 가서 오직 믿음으로 “큰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고백한 후,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지요. 이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행함이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 오른 엘리야는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창자가 꼬이고 배가 뒤틀려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였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사환이 올라가 보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자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고 하지요. 바다 편에서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사환에게 일곱 차례나 바라보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닫힌 하늘을 열어 비를 오게 하는 기도이니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엘리야는 응답받을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도 사람 편에서 구해야 한다는 영계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입니다(겔 36:37).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믿음의 행함과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렸습니다. 작은 구름만 일어났을 뿐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사환에게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말하지요. 그러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큰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응답받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내보여야 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정성껏 예물도 준비해 드려야 하지요. 또한 의심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되 입술로 시인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2. 엘리야 선지자는 왜 번제물 위에 물을 붓게 했을까요?
3.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반 동안 닫힌 하늘 문을 열어 비를 오게 하기 위해 어떠한 기도를 올렸을까요?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아합왕’은 어떤 인물일까?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가장 악명을 떨친 인물이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의 단을 쌓고 섬기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 결국 우상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기근이 임했다. 또한 왕비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등 수많은 악을 행한다. 마침내 그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죽어, 그 피를 개들이 핥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2-818-7241)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은사동, 옥길동)
10교구장	안성현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1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이영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문의전화/ 02-818-7102

알려드리는 말씀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젓과 꿀이 흐르는 땅」 불어가 종이책으로 발간되었고,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한국어가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신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정기원로회가 오늘 저녁예배 후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 오늘 저녁예배는 2022년 임직예배로 드립니다. (부목사 취임: 황금란 목사)
- 「환자를 위한 랜선 기도회」가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님의 인도로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준비찬양: 오전 10시 50분)
- 2022년 영적 성장 프로젝트 1차 전 성도 당회장님 저서 읽기를 진행합니다.
①주님의 자취(상) ②주님의 자취(하) ③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④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⑤일곱교회 ⑥네 영혼이 잘됨같이 ⑦공부 잘하는 비결
※ 기간: 9월 1일(목) ~ 11월 30일(수)까지(3개월)
- 필리핀 이무스만민교회 담임 김주범 목사가 업무차 입국하였습니다.
※ 입국일: 8월 12일(금)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넷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김선화22 성도(15교구, 3청년/ 2-2남 김형식 성도 · 1-4여 이인순 집사의 자녀)
8월 27일(토) 오후 1시, 강북구 도봉로 16 「더 빅토리아 웨딩파티 9층 하늘정원」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중국 1교구(꽃꽃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시설관리국)

— << 교구별 현장예배 장소 >> —

일 정		신학교 예배실	사택 예배실
8월 21일	대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1~6 교구
	저녁예배	중국대교구	7~10 교구
8월 28일	대예배	1~6 교구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저녁예배	7~10 교구	중국대교구
9월 4일	대예배	7~10 교구	1~6 교구
	저녁예배	중국대교구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9월 11일	대예배	중국대교구	7~10 교구
	저녁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1~6 교구

— << 지성전 기도회 일정 >> —

인도: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

날 짜	교구 / 지성전	교구장	구분
8월 21일	18교구 안산지성전	황미경 전도사	3대대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이영인 전도사 010-4820-170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8/21 일

- 00:00 - '요한일서 강해 18' 이재록 목사
- 05:00 - '욥기 강해 7' 이수진 목사
- 14:00 - '우리 삶의 등불 104' 이재록 목사
- 17:00 - '요한계시록 강해 15' 이재록 목사

8/22 월

- 00:00 - '요한일서 강해 19' 이재록 목사
- 07:05 - '요한계시록 강해 16' 이재록 목사
- 08:00 - '창세기 강해 48' 이재록 목사
- 13:00 - '요한일서 강해 40' 이수진 목사
- 15:3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9' 이재록 목사
- 19:30 - '우리 삶의 등불 44' 이재록 목사

8/23 화

- 01:00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5' 이수진 목사
- 08:00 - '창세기 강해 49' 이재록 목사
- 10:20 - '치료와 응답의 공의 1' 이재록 목사
- 12:05 - '3차 영혼육 3' 이재록 목사
- 14:00 - '요한일서 강해 19' 이재록 목사
- 15:3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0' 이재록 목사
- 18:00 - '욥기 강해 8' 이수진 목사
- 19:00 - 구역 공과 6

8/24 수

- 00:00 - '요한일서 강해 21' 이재록 목사
- 01:0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5:00 - '요한계시록 강해 46'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12:05 - '3차 영혼육 4' 이재록 목사
- 13:00 - '위로부터 난 지혜 7' 이재록 목사
- 15:3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1' 이재록 목사
- 17:00 - '요한계시록 강해 18'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52' 이재록 목사

8/25 목

- 01:00 - '욥기 강해 21' 이수진 목사
- 07:05 - '요한계시록 강해 19' 이재록 목사
- 08:00 - '창세기 강해 51' 이재록 목사
- 10:20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1' 이재록 목사
- 12:05 - '3차 영혼육 5' 이재록 목사
- 13:00 - '위로부터 난 지혜 8' 이재록 목사
- 14:00 - '요한일서 강해 21' 이재록 목사
- 19:20 - '절과 풀이 흐르는 땅 9' 이수진 목사

8/26 금

- 08:00 - '창세기 강해 52' 이재록 목사
- 10:20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2' 이재록 목사
- 14:00 - '요한일서 강해 22' 이재록 목사
- 17:00 - '요한계시록 강해 20' 이재록 목사
- 19:00 - 천지창조의 섭리 20
- 20:40 - 페루 연합대성회 2

8/27 토

- 07:05 - '요한계시록 강해 21' 이재록 목사
- 10:00 - '마음' 이재록 목사
- 12:05 - '3차 영혼육 7' 이재록 목사
- 19:40 - '우리 삶의 등불 106'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02-824-7107 / webmaster@gcntv.org)

※ 유튜브 GCN방송 채널 및 KT olleh tv 882번(HD채널, 별도 편성)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위성 A/S 문의 : 1577-2073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분. 41번(영어), 42번(불어), 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분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KoreaSat5 위성방송, KT olleh tv 882번,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일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예배_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tv.org

- Aug. 21(Sun.)

(Hebrews 3:14) “For we have become partakers of Christ, if we hold fast the beginning of our assurance firm until the end”

- Aug. 22(Mon.)

(Luke 22:46) “And said to them, “Why are you sleeping? Get up and pray that you may not enter into temptation.””

- Aug. 23(Tue.)

(Matthew 11:29)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 Aug. 24(Wed.)

(Matthew 11:30)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 Aug. 25(Thu.)

(1 John 2:16)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 Aug. 26(Fri.)

(1 John 2:17) “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also its lusts;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 Aug. 27(Sat.)

(Proverbs 17:22) “A joyful heart is good medicine, But a broken spirit dries up the bones.”

금주의 성경구절

8월 21일(주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히 3:14)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8월 22일(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눅 22:46)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8월 23일(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마 11:29)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8월 24일(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30)

8월 25일(목)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요일 2:16)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8월 26일(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요일 2:17)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8월 27일(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잠 17:22)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 이재록 목사 간증 수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육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고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어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연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사행하리니/ 입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니/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잠들었나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픔이 나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나쁘게 보나리니/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제설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 2.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 예배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 기도편

치료하는 영약/ ... 5.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 심계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 열매양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지혜의 샘/ 잠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네딕도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지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에배 설교 모음 1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갈옷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간추렸던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8월 추천도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일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껏
비상의 날개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URIM BOOKS

#홈페이지 : www.urimbooks.com

#페이스북 : facebook.com/urbooks17

#블로그 : blog.naver.com/urbooks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여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회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웅(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심계편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도 ①, ②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젖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상!

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각 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각 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각 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30	각 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각 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각 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40 저녁예배/ 오후 1:30	

※ 예배시간 및 관련 문의 : 만민중앙교회 기획실 ☎ 02-818-7236